

국내 번역문화 수준, '낮거나 보통'

출판관련 언론인 · 출판평론가 설문조사

응답자들 '가장 뛰어난 번역가에 김석희 씨'

낮은 번역료 · 번역자 자질 · 열악한 번역 인프라 등 지적

다수의 출판 전문가와 언론인들은 국내 번역문화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저널>이 이번호 '표지이야기-번역 문화, 그 공식과 허실' 과 관련, 국내 출판 관련 언론인들과 출판평론가들을 대상으로 번역문화의 수준과 질, 전망 등에 관해 간이 설문조사를 편 결과, 전체 응답자 24명 가운데 15명이 '보통' 이라고 대답했으며, '낮은 편' 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7명에 달했다. 이에 비해 '높은 편' 이란 대답은 2명에 불과, 전체의 8%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특히 설문에 응한 출판전문가들은 국내 번역가 중에서 김석희 씨를 '가장 자질있고 대표적인 인물' 로 꼽은데 이어 이윤기, 강주현, 김화영, 김남주, 양역관 제씨를 뛰어난 번역가들로 기억했다.

'번역자 제대로 대우해야...스스로 자질 높일 필요도'

모두 51명에게 설문을 의뢰, 그 중 24명이 답을 보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번역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오역 등 번역자의 자질' (15명)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서 '낮은 번역료' 란 대답이 13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일반 대중의 빈약한 독서량' 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명이었다.

중복응답자 6명을 고려할 때 대다수 출판 전문가들은 번역자의 자질과 함께 열악한 처우, 빈약한 투자를 번역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두가지 설문은 국내 번역문화 발전의 필요 · 충분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설문에 응한 언론인 · 평론가들도 별도의 코멘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현실을 개탄하거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 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직 교사들의 독서장려 모임인 '책파세' 대표 허병두 씨(송문고 교사)는 "독후감 수준의 글을 쓰는 번역가들이 아닌, 수준높고 다양하며 참신한 시각의 본격적인 번역평론가들의 등장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신문 문화부 김종면 기사는 "전문성이 결여된 번역가들의 자질이 문제" 라며 "아무나 외국어 좀 한다고 번역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고 꼬집었다. 그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는 지적이다.

정책 지원 절실, '해외진출 위해 다양한 인프라 · 마케팅'

이와 함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역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출판평론가 한미화 씨는 "번역은 반역" 이란 말이 있듯이, 번역가로 살기 힘들게 현실" 이라며 "번역이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처우, 정당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진단했다. 한 씨는 또 "서구 사회에선 번역을 지적 인프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치 않다" 고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신문 강춘진 기사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역설했다. "정부 차원에서 번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는 강 기사는 "노벨상 실패의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뒷받침과 함께 인력양성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우리 문학작품 혹은 국내서적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중 11명이 각기 '다양한 번역 인프라의 구축' 과 '활발한 저작권 수출 마케팅' 을 답으로 제시했다. 애초 질문 행간에 '번역문화의 원활한 작동' 을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뿐 아니라 저작권 마케팅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두 가지 항목 모두를 답으로

택한 중복응답자들을 포함한 7명은 '양서 출간과 양질의 텍스트'를 꼽기도 했다. 결국 훌륭한 번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또한 중요함을 시사하는 셈이다.

대표적 번역가, '김석희·이윤기·강주현·김화영·양역관·김난주...'

다소 원색적이긴 하나, '가장 자질이 우수하거나 눈에 띄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직 번역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이 김석희 씨를 거명했다. 김석희 씨는 《로마인 이야기》(한길사), 《프랑스 중위의 여자》(프레스 21), 《털없는 원숭이》(영언문화사), 《아름다운 이야기》(웅진닷컴) 등을 통해 드러난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과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내공이 응답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설문엔 분야마다 각기 다른 전문 번역가를 골라야 마땅하다"는 출판평론가 권태현 씨의 지적처럼, 설문 방식 자체가 정제되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내 번역가들 면면에 대한, 출판관련 언론 및 출판평론계의 평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심장한 결과다.

일본어에 국한해선 양역관, 김난주 씨를 으뜸으로 꼽은 응답자도 각기 3명에 달했다. 이윤기, 강주현, 김화영 씨를 대표적 번역가로 든 사람들도 여럿 있었으며 이세욱, 이하늘, 이정인, 이한음, 박유화, 최재천, 김춘미, 송병선, 안정효, 장영희, 공경희 등 씨씨도 각기 거명됐다. 그러나 한 출판평론가는 이같은 설문엔 응답을 회피하는 대신 "대중적 인지도와 번역 출간 종수 등에 좌우되는 '브랜드' 가치라면 몰라도, 선불리 번역가로서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선 '특별히 국내 번역문화 현실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항목으로 뚝뚝이 번역문화 발전을 위한 출판전문가들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했다. 이번 호 표지이야기 기획의도를 충실히 살리는 의미에서 이들 응답자들이 보내온 내용을 원문 그대로 싣는다.

문 : 특별히 국내 번역문화 현실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이하 無順)
김갑수(출판평론가) :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었으나, 번역자 주관에 따라 지역·의역이 혼재된 상황에서 번역(문화)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중역·오역에 대한 문제를 점검할 주관 단체의 필요성도 크다.
고두현(한국경제신문 문화부 차장) : 번역자의 질적 향상, 번역에 대한 합당한 대우, 대학에서 번역물을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풍토

개선, 쓸림현상 개선(특정 언어 위주로 편중되고, 다양한 언어권별 번역가층이 두텁지 못함) 등이 시급하다.

김성신(출판평론가) : 번역의 방식 때문에 크게 감동받았던 책 중에 《니진스키 영혼의 절규》가 있었다. 이덕희 씨가 번역했는데, 니진스키에 대해선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분이 책을 번역하면서 역자 서문으로 원전에는 없는 내용을 덧붙였는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한편의 완전한 니진스키 평전이란 느낌이 들 만큼 훌륭했다. 한국의 번역 출판물에 대해 아쉬운 점은 바로 그것이다. 출판이란 본질적으로 저술가가 아닌, 독자들에게 복무하는 것임을 상기하면, 원전에 충실하되, 더 나아가 원전 이상의 완성도를 이루겠다는 출판인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조은미(오마이뉴스 기자) : 번역자가 엉망으로 번역한 것을 출판사에서 꼼꼼하게 교열해서 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태도가 결국 엉망인 번역자가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한다. 교수라거나 하는 등 번역자의 사회적 지위는 중요치 않다. 실력이 뛰어난 번역자를 과감히 발굴하고, 능력대로 대우해주는게 필요하다.

안석호(세계일보 문화부 차장) : 해외 화제 신간의 날림식 번역 출간을 지양하고, 출판 전에 저질 번역에 대한 감수를 강화해야 한다.

권태현(출판평론가) : 대부분 번역자들이 적은 번역료와 촉박한 일정에 쫓기고 있는 현실이다.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임종업(한겨레 문화부 차장) : 왜 한문번역에 대해선 (설문조사에서) 안 물어보나? 한문번역이야말로 무척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엉망인데...

송승희(출판평론가) : 다양한 콘텐츠가 아쉽다.

노정용(파이낸셜뉴스 문화부 차장) : 문학번역원이 (제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한다. 영어 판본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현실 아닌가.

한기호(출판평론가) : 번역을 학문적 업적으로 여기지 않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특히 출판사들로서, 번역자가 하청업자가 아니라, 공동운영체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김기태(출판평론가·세명대 교수) : 번역 및 저작권 실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규 대학(원)에 관련학과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신임숙(어린이도서관연구회 사무국장) : 영어식 표현을 남발, 우리말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김흥기(한국사보협회장) : 번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하고, 국고지원이나 시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신용관(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 번역 인세문화의 올바른 확립과 책임번역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허연(매일경제신문 문화부 차장) : 번역이 곧 '제2의 창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아울러 학술서 번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술서 시작 지원책도 필요하다.

표정훈(출판평론가) : 번역이 짙은 번역료에 대체로 비례한다. 물론 번역료가 싸다고 번역가가 일부러 대중 번역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전문 번역가가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우리 번역문화 앞날에 희망이 있다. 아울러 대학교수 평가나 교원 임용시에 번역 성과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각종 번역 지원 사업들을 한층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해외 고전 번역 지원사업을 일부 출판사가 사실상 독점하게 돼있는 제도는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싶다.

김남중(국민일보 문화부 기자) :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번역가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 ☐

정리_〈출판저널〉 편집부